INDEPENDENT MUSIC COMPANIES ASSOCIATION

번역:

WORLDWIDE INDEPENDENT NETWORK

10억 구독자,
그리고 계속되는 성장...

야심찬 실험,
그리고 협력의 순간

IMPALA 디지털 음악 플랜 **2026**

서론

디지털 음악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음악을 듣고 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 수는 곧 전 세계 10 억 명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시장이 더 크고, 더 공정하고, 더 다양하고, 더 투명해질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현재 음원 수익의 가장 큰 원천인 스트리밍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스트리밍을 넘어 디지털 시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파트너십의 정신 아래, 그리고 디지털 음악 시장이 문화적·재정적·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성장·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수준의 야심을 가지고 함께 일할 때입니다.

IMPALA 의 제안은 디지털 서비스는 물론, 규모와 성격을 불문한 모든 레이블과 유통사(대형·소형, 독립·메이저)를 대상으로 합니다.

IMPALA 는 다섯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1. 수익을 늘리고 공정하게 분배하며 가치 격차를 해소한다
2. 신규·신진·다양한 음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3. 업계 전반의 출처(provenance) 표시를 통해 신뢰를 확립한다
4. 사기와 AI 로 인한 희석을 막고 책임 있는 모델을 수용한다
5. 기후 영향을 줄이고 공동의 혁신을 강화한다

배경

IMPALA 의 새로운 디지털 음악 플랜은 두 달간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에게 우선순위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고, 회원사 전반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은 물론 최근의 분석과 이미 업계에서 진행된 진전 사례에서도 지침을 얻었습니다. 기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플랜은 여전히 유효한 기존 권고안과 최근의 분석에 기반합니다. 여기에는 댄 파울러(Dan Fowler)가 수행한 이중 구조 스트리밍 경제의 전개 양상에 대한 평가와 음악 산업에서 다양성과 독립성이 갖는 중요성에 관한 분석, 그리고 유럽 내 다양한 레퍼토리가 디지털 서비스에서 마주하는 여러 장벽을 지적한 EU 의 최근 발견 가능성(discoverability)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사기와 AI 문제에 협력과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널리 자리 잡은 것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음악이 번성하고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모든 시도가 근절되는,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은 모든 합법적 주체에게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다른 우선순위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IMPALA 는 이들이 시장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IMPALA 의 제안에는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며, 이 요소들은 모두 모든 참여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깊은 구조적 변화에 기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음악 시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부 선입견도 검증합니다. 또한 기존 제안과 마찬가지로 스트리밍을 넘어 디지털 음악 시장 전체를 바라봅니다. 일부 권고는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다른 일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더 강한 규제를 포함해 완전히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1] IMPALA 는 이를 기존 메커니즘을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로 봅니다. 야심찬 실험, 그리고 협력을 추구하여 업계가 스스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IMPALA 는 12 개월 후 진전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며, 생태계 전반의 파트너들에게 이 평가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회원사들의 견해를 관통하는 것은, 아티스트와 팬의 연결이 디지털 음악의 핵심이라는 확신입니다. IMPALA 는 여기 제시한 다섯 가지 우선순위가 디지털 음악 시장 전반의 효과적인 성장, 그리고 다원성·공정성·다양성·신뢰·혁신·지속가능성의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부록에서는 이 권고안에 참여한다는 것이 디지털 음악 서비스와 레이블·유통사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했습니다.

1. 수익을 늘리고 공정하게 분배하며 가치 격차를 해소한다

디지털 음악 경제에는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2026 년 6 월 음악 산업이 전 세계 구독자 10 억 명에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는 레이블과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창의성, 그리고 대중이 음악을 즐기고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대규모로 개발해 온 스트리밍 플랫폼의 역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번영을 공유하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훨씬 많으며, 그 출발점은 오늘날의 가치 격차, 즉 구조적 보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격차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비(非)음악 콘텐츠로 인한 음악 로열티의 희석, 지급 기준선(threshold),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소셜

미디어·UGC 의 음악 이용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사기와 AI 역시 시스템 밖으로 가치를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발점으로서, 각 가치 격차가 업계에 초래하는 손실을 산정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뒤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 원칙으로서, 서비스는 보상 및 프로모션 약정 등 여타 주요 조건에 관해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 플랜에서 지적했듯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성숙한 시장에서는 음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구독료 인상을 환영합니다.[2] 오디오북, 팟캐스트, 기능성 오디오 또는 기타 형태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음악 구독의 경우, 음악을 희생하는 방식의 희석은 없어야 합니다. 가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더 필요합니다. 애초에 인상분 배분에 음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성장은 아티스트와 레이블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번들링이 있는 경우, 음악은 모든 가격 인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슈퍼팬 티어와 같은 고부가 상품, 그리고 아티스트-팬 공간 같은 기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실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플랫폼이 이를 시험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이와 함께 특히 성숙한 시장에서는 무료 티어를 재검토하는 데 공동의 이해가 있다고 봅니다. 무료 접근은 잘 관리될 경우 구독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특정 시장에서는 합법적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장에서는, 특히 동일한 콘텐츠가 거의 제약 없이 제공되는 경우, 무료가 유료 구독과 경쟁하면서 구독료 책정과 시장 침투율, 음악의 전반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비스들은 플랫폼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험하며 많은 것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정신은 비즈니스 모델과 로열티 배분 방식으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대안적 수익 배분 모델을 시험하는 것은 DSP 가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티스트 성장 모델, 프로 라타 템포리스(재생 시간 비례), 팬 참여 모델 등이 제안되었으나 실제로 시험된 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여러 형태의 사용자 중심(user-centric)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3] 또한 신규 발매, 다양한 레퍼토리, 신진 지역 아티스트, 독립 음악 등에 대한 지급 부스트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혁신과 투자, 위험 감수에 프리미엄이 보상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성숙하고 신규 진입자가 다른 방식을 시도하는 가운데, 서비스들이 다양한 음악과 지역 아티스트, 신규 발매를 지원하는 개선 방안에 대해 각자의

구상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IMPALA 는 서비스들이 이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그 의도를 알릴 것을 권장합니다.

재생 횟수나 청취자 수에 기반한 수익화 기준선은 또 하나의 가치 격차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며 폐지되어야 합니다. 스트리밍된 음악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기준선이 사기 대응에 실질적 가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새 탐지 도구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재설계하고 낮춰야 합니다. 수익화 기준선이 존재하는 경우, 진정한 아티스트는 검증 절차를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유보된 로열티의 배분 방식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 가치는 이미 가장 많은 지급을 받는 쪽에 유리하게 재분배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애초에 기준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이들[4]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 변경은 협상 테이블에서 독립 진영과 자유롭게 합의되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거나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량 공급 의무가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넘어, 업계는 음악이 소비되는 디지털 시장의 다른 영역, 즉 소셜 미디어, UGC, 더 넓게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에서 아티스트와 레이블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히 미미합니다(예컨대 CMU 의 최근 보고서 참조). IMPALA 는 기존 권고안에서도 이 가치 격차를 지적했으며, 이는 여러 면에서 가장 중대한 격차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료 인상이나 유출 차단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가치 격차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멀린(Merlin)과 같은 집합적 라이선싱 해법은 레이블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강한 독립 부문을 키우기 위한 댄 파울러의 권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음악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소규모 주체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라이선시와 라이선서 양측에 효율성을 가져다줍니다.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는 모든 주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메이저든 독립이든 레이블과 유통사는 WIN 공정 디지털 거래 선언(Fair Digital Deals Declaration)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선급금, 보증금, 지분 매각 수익을 소속 아티스트 및 유통 레이블 전체와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플레이리스트 및 기타 발견 도구에 관한 약정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디지털 거래 조건은 공정하고 시대에 맞아야 하며, 낡은 비율과 공제 항목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티스트 수익을 명확히 설명하고, 요약과 함께 이해에 충분한 세부 내역을 담은 로열티 명세서를 제공하는 투명한 보고가 함께해야 합니다.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인 세션 연주자 역시 그 작업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아직 없는 곳에서는 전국 단위 산업 교섭을 통한 방식도 포함됩니다.

2. 신규·신진·다양한 음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음악 생태계는 모든 형태의 다양한 음악을 촉진합니다.[5] IMPALA 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발견 가능성에 관한 EC 보고서의 발견 사항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카탈로그(구작) 쪽으로 기울어진 시장에서 청중이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5 년 전 첫 플랜에서 말했듯이, 다양성을 기회로 보는 서비스가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5 년이 지난 지금, 이는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강화할 기회일 뿐 아니라 규제 당국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점점 더 필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든 UGC 나 소셜 미디어든,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공통된 기회입니다. 답은 국내외를 아울러 신진 아티스트, 다양한 음악, 신규 발매에 대한 지원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MPALA 는 시장의 어느 영역에 있든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현지 인사이트와 에디토리얼 지원을 극대화하고,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점검할 것을 기대합니다. 큐레이션과 에디토리얼에서 사람의 개입은 필수적이며, 특히 대표성이 부족한 시장(중동부·남동부 유럽이 한 예이고, 북유럽에서 남유럽까지 다른 지역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에서는 모든 지역에 강한 인력 기반이 필요합니다. IMPALA 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DSP 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최소한의 현지 에디토리얼 역량(해당 언어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갖춘 에디터)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큐레이션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서비스들은 눈에 띕니다.[6] 물론 이는 적절한 프롬프트가 주어질 때 발견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 도구와 알고리즘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EU 발견 가능성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양성과 발견 가능성에 대한 약속은 서비스가 훌륭한 음악을 기념하고, 단순히 "모든 음악을 제공한다"는 것 이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내외 신진 아티스트, 신규 발매, 다양한 레퍼토리를 알리는 일은 영감을 주고 연결을 만드는, 측정 가능한 능동적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7] 이를 음악적 특성과 사람의 전문성, 그리고 조정된 알고리즘에 기반하도록 하고 권리자 편향과 재정적 편향을 제거하면, 참여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성과 보고는 연간 단위로 측정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에디토리얼 플레이리스트 노출 비중, 알고리즘 추천, 프로모션 도구 활용 등의 지표를 국가별·언어별로, 또한 장르, 젠더 및 더 넓은 다양성 지표 등 관련 요소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팬과 아티스트의 연결을 개선하는 것도 다양성 증진의 일부이며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서 언급한 슈퍼팬 티어는 환영할 만한 투자로 보며, 아티스트-팬 공간과 팬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더 많은 기회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8] 회원사들은 또한 플레이리스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 차트 같은 도구의 활용, 선호도·추천·검색 기능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도 언급했습니다.[9] 팬과 그들이 음악 및 부가 기능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데이터를 권리자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DSP 의 보고가 인상적인 정확도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며, 모든 서비스가 이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사들은 팬의 참여 방식에 관해 더 많은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그 개발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레이블과 유통사는 아티스트 육성, 레퍼토리 다양성, 청중 참여(새로운 아티스트-팬 기능 포함)에 계속 투자해야 하며, 동시에 음악이 정확한 메타데이터와 발견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관행으로 뒷받침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업계 전반의 출처(provenance) 표시를 통해 신뢰를 확립한다

식품과 와인 등 다른 산업이 그랬듯이, 음악 생태계 전체가 출처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차별화 지점으로 받아들일 기회가 있습니다. 음악에서 출처란 콘텐츠의 여러 범주를 식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레이블과 계약한 아티스트(독립 소유든 메이저 소유든), 자체 발매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음원, AI 생성 콘텐츠(사용된 도구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콘텐츠의 바다 속에서 진정한 음악을 식별하고 알리고 기념하며, 이용자의 선택과 필터링을 지원하고, 발견 가능성과 팬과의 연결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하며, 최근 제시된 사례들은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이를 기술적 과제일 뿐 아니라 상업적 과제로 격상시킬 시점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무엇이 "실질적으로 AI 생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합의(아래 참조)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 품질과 투명성, 표시를 개선함으로써 음악 산업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창작자, 기업은 자신이 접하는 콘텐츠가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제시·수익화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는 단순한 표시를 넘어섭니다. 공통의 출처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음악 경제 전반에 투명성과 발견 가능성, 책임성을 위한 공유 인프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품질 인증 역할을 하여 서비스가 다양한 레퍼토리를 식별·홍보하고 독립 음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전반적인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레이블과 유통사에게 이는 독립 음악의 가시성을 강화할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이 작업은 시급합니다. 프레임워크가 일단 마련되면, 그 성패는 폭넓은 채택과 정확한 정보 입력에 달려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출처 표준은 디지털 음악 경제 전반에서 새로운 발견 도구, 팬 경험, 라이선싱 해법, 상업적 기회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4. 사기와 AI 로 인한 희석을 막고 책임 있는 모델을 수용한다

스트리밍에 대한 신뢰는 플랫폼, 유통사, 권리자, 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가치 사슬 전반에 사기 방지 조치를 적용하는 데도 달려 있습니다. 보상 및 추천 시스템을 악용하도록 설계된 모든 관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10]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하며, 업계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상충하는 해법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독립 기업은 자원 제약으로 인해 특히 취약할 뿐 아니라, 디지털 음악 시장의 신뢰성 자체가 위태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사기 방지 조치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며, 문제가 권리자에게 번지기 전에 적절한 단계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무허가 AI 도구로 생성된 콘텐츠, 속도를 빠르거나 느리게 바꾼 트랙, 남의 아티스트 프로필에 등록되는 트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율된 조치를 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생태계의 진지한 주체들이 아티스트가 맡긴 음악을 지키는 데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팬에게 의미와 연결을, 그리고 물론 가치 제안을 강화합니다. 이는 스트리밍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티스트 인증,[11] 견고한 KYC(고객 확인)와 사기 방지 체계, 그리고 표적화된 게재 수수료(carriage fee)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한 제재처럼 조작을 억제하는 재정적 조치는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가짜 계정과 인위적 스트리밍을 탐지하려는 플랫폼의 노력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일부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적절한 견제와 균형, 투명성, 명확한 소통이 갖춰져, 합법적인 아티스트와 레이블이 필요할 때 충분한 구제 수단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레퍼토리가 사기를 은폐하는 데 이용되거나 잘못 식별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IMPALA 는 이미 2023 년에 이를 요구했습니다. 초기에 마련된 업계 행동 규범을 현재의 과제에 맞게 개정하고, 취해진 조치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Music Fights Fraud Alliance 같은 이니셔티브와 전문 탐지 시스템 제공업체의 정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반 인프라 역시 견고해야 악의적 행위자가 발판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IMPALA 는 메이저와 독립을 포함한 모든 유통사가 시장 최고 수준의 도구와 최선의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음악이나 관련 콘텐츠가 유통 시스템을 통과하기 전에 모든 고객과 콘텐츠를 검증할 것을, 즉 "파이프를 청소할" 것을 기대합니다.

스트리밍 조작은 경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끊이지 않는 공격에 대응하는 일은 자원 소모가 크기 때문에 독립 진영이 더 쉬운 표적이 되고, 문제의 규모 자체에 불균형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회원사들에게는 이에 관한 IMPALA 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안내합니다. 구조적 장벽을 막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적절한 단계에서의 조치가 필수적이며, 새로운 도구는 모든 권리자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고, 앞서 언급한 견제와 균형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AI 도구는 사기와 조작 탐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IMPALA 는 기존 권고안에서 이러한 활용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AI 생성 콘텐츠는 사기꾼을 돕기도 하며 구조적 과제를 제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음악의 희석을 방지하고, 생태계 전반에 확실성을 만들며, 라이선스된 AI 도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의 표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AI 가 생성한 콘텐츠를 어떻게 취급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에 관해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질적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준 정의와 사용된 도구의 공개가 핵심입니다. DSP 를 포함해 지금까지 콘텐츠에 태그를 붙이려는 노력을 환영하며,[12] 업계 전반의 프레임워크를 향한 작업이 가속화되기를 지지합니다. 이는 식별에 그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실질적 AI 생성 콘텐츠를 어떻게 취급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서비스마다 접근 방식이 다른데,[13] 이는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IMPALA 의 제안은 두 가지입니다. (i) 무허가 도구의 사용은 해당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침해물로 만들며, 업로드·보상·발견 시스템에서 차단되어야 합니다. (ii) 라이선스된 도구로 만든 생성형 AI 콘텐츠는 적절히 관리·표시되고 필터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음악과는 다른 상품이므로 음악 로열티 풀이나 추천 시스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별도의 공간에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레이블과 아티스트가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라이선스 AI 모델에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 레이블들은 음원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러한 사안을 아티스트와 논의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또한 목소리, 이미지, 이름, 초상의 이용은 통상 아티스트의 동의를 요구하며, IMPALA 는 이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권장합니다.[14] 적절한 동의가 확보된 상태에서 책임 있는 AI 기반 팬 경험을 실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이러한 모델은 무허가 도구가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면서 저해되고 있습니다.

권리 관점에서 음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용에 앞서 구체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학습이나 그 밖의 AI 관련 이용에 대한 동의가 아니며, 어떤 저작권 예외나 표준 약관도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야 합니다. IMPALA 는 모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유보되어 있음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파트너에게 확인하라는 IMPALA 의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하며, WIN 의 AI 원칙도 함께 참고할 것을 권합니다. 레이블은 디지털 서비스 및 유통사와의 계약을 점검해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5]

5. 기후 영향을 줄이고 공동의 혁신을 강화한다

건강한 디지털 시장은 생태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행을 지원하는 혁신적 실천 위에서 번성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업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접근을 시험하고, 다른 산업에서 배우고, 표준을 개선하고, 공동의 과제에 협력해야 합니다.

독립 진영은 아티스트 보상의 공정성과 AI 원칙에서 지속가능성, 다양성, 윤리적 경영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변화를 먼저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 측면에서의 독립 진영의 기여는 독립 부문의 가치에 관한 ORCA 보고서와 앞서 언급한 댄 파울러의 생태계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우리는 데이터 효율화, 포맷 수 축소, 카탈로그 중복 감소, 업로드 남발 억제, 그리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더 지속가능한 선택을 촉진해 에너지 소비와 물 사용 등을 줄이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협력은 문제 지점을 찾아내고 감축 전략과 보고 표준에 합의하는 데 핵심이며, 저장된 트랙당·재생당 배출량, 사기 및 AI 생성 콘텐츠의 영향 같은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 레이블과 유통사는 교육, 가이드, 탄소 계산기를 포함한 IMPALA 의 무료 도구를 활용해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16] Music Climate Pact 은 서비스에 음원이 전달되는 시점까지의 배출에 관한 디지털 특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으며, 음악이 DSP 의 운영 통제 범위에 들어간 이후에는 DSP 가 책임을 집니다.[17] Murmur 같은 기후 투자 기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아티스트, 팬, DSP,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영 관행에 걸친 혁신은 디지털 시장을 뒷받침합니다. 플랫폼의 지원과 파트너십 아래 독립 부문이 혁신을 주도해 온 오랜 전통을 이어간다면, 창작자와 기업, 청중 모두를 위한 음악 생태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중요한 이유

독립 레이블은 필수적인 위험 감수와 전문성, 도달력을 제공하며, 모든 형태의 신규·신진·다양한 음악에 대한 주된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모든 지역과 장르, 청중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음악

서비스를 흥미롭게 만드는 신규 발매와 다양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독립 음악 부문은 음악 산업의 심장부에 자리하며, 지역 씬에서 글로벌 성공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에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아티스트 커리어를 구축하기 위해 열정과 원칙, 투자를 쏟아붓습니다.

이는 이 제안들에, 그리고 독립성과 다양성을 의미 있게 지원·강화하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상당한 무게를 더해줍니다. 이것이 디지털 음악 서비스와 레이블·유통사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부록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일하기, 12 개월 후 검토

IMPALA 는 이해관계자 및 업계 다른 주체들과의 오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기와 AI 등 여러 과제에서 이미 진행 중인 진전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안이며, 동시에 논의의 범위를 넓히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생태계 전반의 과제에는 단 하나의 해법이 없고, 여러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동의 야심이 성공한다면 팬과의 연결은 더 강해지고, 생태계의 여러 층위에 있는 더 많은 현업 아티스트와 레이블이 자신의 예술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악 경제는 더 크고 더 지속가능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규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신뢰와 투명성 측면에서 음악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작업과 1 년 후 진전을 함께 측정하는 협업을 기대합니다.

부록

IMPALA 2026 디지털 음악 플랜

이 권고가 디지털 서비스에 의미하는 것

수익을 늘리고 보호할 것: 가격을 인상하고 무료 티어를 재검토하며,[18] 슈퍼팬 티어를 개발하고, 다른 콘텐츠로 인해 음악 로열티나 가격 인상분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위한 새로운 로열티 전략을 마련할 것.

지급을 공정하게 할 것: 기준선을 폐지하고, 유지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며 유보된 금액을 다르게 배분하고, 신진 아티스트와 다양성을 지원하는 대안적 수익 모델을 시험할 것.

공급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 수익화되지 않거나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음악은 불이익 없이 공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특별 기능을 장려할 것.

더 강한 연결을 구축할 것: 사람 큐레이터와 에디터를 고용하고, 아티스트-팬 공간 등 기능을 활용해 팬과 소통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대표성이 부족한 국가에서의 기반을 강화할 것.

다양성에 헌신할 것: 신규 발매, 신진 아티스트, 그리고 여러 형태의 다양성(문화, EDI 요소, 언어, 지역, 장르)을 알리고, 구체적 실행에 대해 매년 보고할 것.

진정한 발견 가능성을 구현할 것: 선호도와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진정성·감사 가능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권리자 편향과 재정적 편향을 제거할 것.

출처 표시를 적용할 것: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메이저/독립), 자체 발매, 라이브러리 음원, AI 생성(사용 도구 포함) 등을 구분하는 업계 공통 체계에 합의할 것.

사기를 근절할 것: KYC, 아티스트 인증, 메타데이터, 벌금과 게재 수수료에 관해 권리자와 협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보호적 견제와 균형을 마련하며, 인위적 청취를 차단하고 업계 규범을 개정할 것.

인간의 창작을 보호할 것: 생성형 AI 콘텐츠로 인한 희석을 막고(로열티·발견 대상 제외), 팬을 위한 책임 있는 AI 기능(예: DJ, 믹스)은 권리자와 협력해 개발하며, 무허가 AI 트랙의 업로드를 차단할 것.

지속가능성에 협력할 것: 협력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영향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여러 지표(저장된 트랙당·재생당 탄소, 사기와 생성형 AI 콘텐츠의 영향)에 대해 보고할 것.

이 권고가 레이블과 유통사에 의미하는 것

출처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 표시는 발견과 진정성을 위한 기회다 —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메이저/독립), 자체 발매, 라이브러리 음원, AI 생성(사용 도구 포함) 등.

파이프를 청소할 것: 모든 음악과 모든 고객을 검증하고, 사기 및 조작에 관한 업계 규범 개정에 산업 전체와 협력하며, 악의적 행위자는 배제하고 선량한 행위자는 보호하는 견제와 균형이 갖춰진 인센티브 설계에 참여할 것.

다층적 AI 정책을 적용할 것: 학습에 대해 권리가 유보되어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아티스트와 논의하며, 실질적 AI 생성 콘텐츠의 업계 정의와 취급 방식에 합의하고, 책임 있는 도구를 수용할 것.

다양성과 연결을 촉진할 것: 신규 발매와 다양성에 계속 투자하고, 팬과 소통하는 기능을 활용하며, 서비스에 데이터를 요구하고, IMPALA 의 새 EDI 툴킷으로 기업 차원의 측정을 수행할 것.

공정한 로열티를 지급할 것: WIN 공정 디지털 거래 선언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시대에 맞는 디지털 로열티 비율을 지급하고, 오래된 계약은 재평가하며, 소셜 미디어 및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

지분과 여타 조건을 공유할 것: 선급금, 보증금, DSP 지분 매각 대금 등은 소속 아티스트 및 유통 레이블 전체와 공유해야 하며, 플레이리스트 및 기타 약정도 마찬가지다.

투명성을 보장할 것: 아티스트 수익은 계약서와 로열티 명세서에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며, 요약과 함께 이해에 충분한 세부 내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세션 연주자를 지원할 것: 비(非)주연 연주자의 기여에 관한 지역 산업 전반의 협약이 없는 경우, 보상과 조건에 관한 교섭을 장려할 것.

지속가능한 선택을 지원할 것: 탄소 및 기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IMPALA 의 계산기로 측정하고, 팬·아티스트·공급업체와 소통하며, 기후 투자 기구를 활용할 것.

업계 혁신을 주도할 것: 혁신적 실천이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계속 작업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행을 지원하며, 이 부문이 어떻게 앞서 나가는지 보여줄 것.

각주

1. 여기에는 음악 부문 및 다른 문화 부문의 여러 주체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포함된다. 시청각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규제 체계(유럽 콘텐츠 30% 의무, 노출(prominence) 의무 및 다양성·다원성 확보를 위한 기타 의무 부과), 스트리밍 세금, AI 에 대한 예외 또는 강제 보상 모델, 추가 보상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유럽의 디지털 시장 관련 법률도 적용되며 경쟁법도 마찬가지다. 두 영역 모두, 음악 시장과 디지털 음악 서비스처럼 소수의 대형 사업자가 존재하는 집중된 시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강한 독립 기업의 지속적 재생산과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독립적이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음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방안에 관한 댄 파울러의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2. 합법적 구독자 기반이 아직 성장 중인 시장이나 전쟁 등 예외적 상황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시장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3. 예컨대 사운드클라우드와 Lissen 이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Cantilever 는 이를 핵심 모델로 삼고 있다. 사용자 중심 모델을 처음 제안한 디저(Deezer)는 사용자 중심에 더 가까워지도록 조정을 적용하고 있다.

4. 이 모델은 PPL 등 일부 저작권 관리 단체가 공연 및 방송에서 발생한 귀속 불가 수익에 적용하고 있다.

5. 다양성에는 문화, 장르, 언어, 지역, 다양성·포용성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며, 일부는 구조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EC 의 발견 가능성 연구는 알고리즘에 비(非)현지 입력값을 넣을 경우 현지 언어에 대한 추천이 0%까지 떨어지고, 더 큰 시장과 언어를 공유하는 작은 시장은 체계적으로 희석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지리적·언어적 불균형은 다른 다양성 격차를 증폭시킨다. 현지 언어 레퍼토리가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글로컬라이제이션" 경향도 언급되지만, 이는 주로 최상위권 아티스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일반적 추세는 아니다.

6. 예컨대 Qobuz 와 Cantilever 에게 사람에 의한 큐레이션은 핵심 특징이며, 애플 역시 이를 강조한다.

7. 이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사용이 늘어날수록 "바닥으로의 경쟁" 효과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유료 재생 부스트 도구의 사용을 넘어서야 한다.

8. 예컨대 스포티파이의 Song Credits, About the Song, Song DNA 기능은 청취자에게 음악과 아티스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9. 디저의 Flow 는 청취자에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주며, 애플은 레이블 등 여러 범주로 검색할 수 있게 한다.

10. 예컨대 가짜 스트리밍, 가짜 아티스트, 가짜 팬, 가짜 트랙, 속도를 빠르거나 느리게 바꾼 트랙, 청취 조작 등.

11. 예컨대 실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스포티파이의 새로운 인증 배지.

12. 예컨대 디저의 AI 탐지·태깅 시스템, 애플의 AI Transparency Tags, 스포티파이 Song Credits 의 AI 공개, 구글 AI 도구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의 라벨링(크리에이터도 합성 콘텐츠를 공개해야 하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시 삭제된다).

13. 예컨대 디저는 이러한 콘텐츠를 추천 시스템에서 차단한다. 타이달은 최근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4. 예컨대 스포티파이의 사칭 방지 정책,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초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유튜브의 새로운 도구.

15.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존중하는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역시 필수적이며 이는 IMPALA 의 또 다른 작업 영역이다(예컨대 IMPALA 의 산업 정책 참조). 여기서는 업계의 모범 관행만을 다룬다.

16.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고 프레임워크인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표준(Greenhouse Gas Protocol Corporate Standard)을 따르며 스코프 1, 2, 3 을 포괄한다. 이 도구는 Julie's Bicycle 이 제공하고, 바이덴뮐러 지속가능성 기금(Weidenmüller Sustainability Fund)을 통한 멀린의 지원과 Murmur 의 지원을 받는다.

17. IMPALA 의 표준은 레이블·유통사와 DSP 사이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며, MICC 의 평가와 정합한다. Music Climate Pact 의 작업은 여러 우선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공유하는 데 기여한다. IMPALA 는 디지털 워킹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스트리밍 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음악 팬용 팁과 바이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언도 제공된다.

18. 합법적 시장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가, 또는 전쟁 등 다른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이것이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러한 시장에서 서비스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가격과 무료 티어를 포함한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한다.